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누구나 어릴 때 출판에서 한 번쯤은 네잎클로버를 찾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클로버가 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으레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곤 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기가 일쑤였다. 자연 상태에서 네잎클로버가 생길 확률이 1만분의 1이라고 하니 쉽게 눈에 띌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어쩌다 발견하게 되면 뭇 잎이 기뻐하며 책갈피에 꽂아 소중하게 보관하기도 했다.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열심히 찾은 것은 꽃말이 행복·행운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나에게 행운이 돌아온다고 믿었다.

성장해서는 ‘왜 사람들이 하필 네잎클로버를 행복의 상징으로 삼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일이 네잎클로버처럼 드문 것인가?”라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문득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과연 행복하지 않은 일이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가방 살인 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2020년 6월 어느 날, 천안에 사는 한 계모(繼母)가 아홉 살 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계모는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외출했다가 세 시간 만에 돌아왔다. 한데 아이가 가방 안에서 웅변을 보았다고 해서 더 작은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기도 했다고 한다. 계모는 숨을 쉴 수 없다는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가방에 가두어 결국 숨지게 했다.

좁고 답답한 가방 안에서 숨이 멎을 때까지 괴로워했을 이 아이가 우리를 몹시 슬프게 한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인간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전래동화 ‘콩쥐 팥쥐’에 나오는 공쥐의 계모도 여기에 비한다면 선량한 인물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홉 살 난 의붓딸을 학대한 장년의 어느 계부(繼父)가 또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계부의 의붓딸 학대도 천안의 계모 못지않게 엽기적이다. 그는 아이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고 다락방에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는 물고문을 했고, 지문(指紋)을 없애기 위해 뜨거운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기도 했다고 한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까스로 다락방 창문을 빠져나와 위험한 지붕을 통과한 뒤 이웃에 구조를 요청한 이가없는 소녀가 우리를 또 너무나 슬프게 한다. 꽃처럼 아름다울 아홉 살 소녀를 이토록 무참히 짓밟은 그 계부는 인간인가 짐승인가?

어디 그뿐이라. 2020년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관이 무장도 하지 않은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죽어간 이 흑인 청년 역시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슬프게 한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연방 군대를 동원하여 집압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 자체만으로도 슬픈 일 이거니와 남쪽을 향해 쏟아내는 북쪽 지도부의 거침없는 막말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한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후에 쏟아낸 말 폭탄은 그야말로 메가톤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선언 20주년에 한 연설을 두고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멋쟁이 시능을 해 보느라 따라 읽는 글썽 표현들을 다듬는 데 품 꽤나 넣은 것 같다”라 조롱하고 “연설을 듣자니 속이 메스메스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게다가 “시공장에 빠져 하우저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 당국자가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헛된 개꿈을 꾸지 마라”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덩달아 육류관 주방장까지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육류관 국수를 처벌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토해 냈다.

‘말은 사상의 옷이요 마음의 그림’이라고 한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사상과 마음가짐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말로써 그 인격이 드러난다. 이토록 전박한 막말을 거칠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김씨 조선왕조’의 서글픈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社說

삼성전자 광주 공장 증설 적극 추진을

최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외 공장의 섣다른(가동 중단)이 반복되는 한편 가전제품 소비는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량이 20%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광주 사업장의 지난해 생산량은 100만여 대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는 20만 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사업장의 ‘코로나 특수’는 수출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6월 수출은 기계류와 타이어 등 대부분 품목이 하락세였지만, 가전제품은 2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사업장은 늘어나는 냉장고 수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인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제조업계는 그에 따른 직간접 고용 효과가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생산 증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 광주 사업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만 광주·전남에 50여 곳이 넘고 2차·3차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그 수가 2~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는 한 발 더 나아가 광주 사업장의 증설과 규모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체계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춘 광주 사업장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측은 일단 “생산·수출량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증설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판 뉴딜’ 등 경제 위기 극복 정책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증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성삼재 버스 노선 허가 재고해야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리산 성삼재 간 고속버스 노선 허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리산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남 지역의 한 버스업체에 서울과 성삼재를 오가는 정기 고속버스 노선을 승인했다. 고속버스는 오는 24일부터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구례군은 그동안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노선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이 구간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경남도의 협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전남도는 재차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올해 6월 국토부가 노선 승인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구례군은 이미 구례와 성삼재를 오가는 농어촌 좌석버스가 운행 중인 데다 산악 지역 특성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버스 노선 신설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야간 산행객들은 주로 열차를 타고 내려와 구례구역에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성삼재까지 이동해 왔다. 이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구례군 소상공인들은 “이제 구례에는 매연만 남는 거 아니냐”며 한숨을 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도 반대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수도권 거주자들의 접근 편의성만 고려한 결과”라며 “성삼재도로의 위험성과 지리산국립공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례군은 그동안 지리산 대기오염 저감 대책으로 노고단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 운행을 제한할 구상까지 하고 있었던 차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느닷없이 입결을 당한 셈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리산국립공원 훼손을 촉진하는 서울-성삼재 버스 노선 인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청춘 특·특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최미리술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4·조대신문 기자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지자, 한 학생의 거취를 두고 설전이 오간 일이 있었다. 그 학생은 트랜스젠더 A씨로, 남자로 태어나 여자가 되고자 성전환 수술을 감행했다. 법원에서 성별 결정 허가를 받은 여성이었지만 그가 여대에 진학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사건이 됐다. 그는 22살의 나이로 숙명여대 법학과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처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는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무색하게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은 어느새 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를 두고 숙명여대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 숙명여대와 더불어 서울권 여대 내 23개 여성단체는 “트랜스젠더가 여대를 자신의 성별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성명을 냈다. 반면 숙명여대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제3자가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혐오”라고 지적했다.

커지는 논란에 A씨는 결국 신입생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 입학 포기 의사를 전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다양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회의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면서 “무엇보다 비

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더 멀리 나아가길 기원한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정의당도 당시 강민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혐오 표현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학내 괴롭힘으로 인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대학교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교육에서 소외되어온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인 A씨가 입학했다면 이는 숙명여대의 설립 목적에 하등의 어긋남 없는 일이었을 것이며,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한 우리나라에 사회적 올림을 주는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일련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성소수자를 향한 악성 댓글을 읽을 때마다 나까지 상처를 입은 기분이다. 단순한 욕설이아

닌 응어리진 혐오의 언어화를 목격했다. 동시에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사회를 다시 돌아봤다.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언제 어떤 식으로 그들과 마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성소수자 차별에서 정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학이 아닌 우리가 속한 어느 사회에서라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A씨는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처음부터 여대라는 공간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굳게 가지고 모든 걸 주도면밀하게 일을 벌인 것처럼 보이며라고요. 저는 점수대로 합격이 가능한 대학에 원서를 내고 공평하게 합격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시선은 참 억울했어요”라고 밝혔다.

어디에나 있는 한 학생이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정말 어디에도 없는 것일까.

기 고

농업은 보호되어야 할 산업이다



박안수
전 농협 장흥군지부장·경제학박사

“보리는 망종(芒種)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다.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망종 즈음에 관농일을 지정하였지만, 지금 달력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조선시대 임금이 친히 선농단에서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를 올린 시기도 망종 즈음으로, 농사철 중 가장 바쁜 시기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는 2019년 말 농가 소득을 전년보다 88만 4000원 감소한 4118만 2000원으로 발표하였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농가 소득은 크게 농업 소득과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등으로 구

분된다. 문제는 농업 소득이 전년에 비해 20.6%나 줄어든 1026만 1000원으로, 농가 소득 중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20여 년 전이나 큰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농업 소득이 줄어들게 된 요인으로는 마늘·양파 가격 하락, 일곱 차례의 태풍 피해, 쌀값 하락, 농업 경영비의 증가 등이 꼽힌다.

올해도 배·매실·단감 등을 재배하는 과수 농가에 개화기 냉해와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번졌고 마늘은 과잉 생산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학교 급식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화훼 소비 부진으로 풍년 농사와 농업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의 무역이 원활하지 못하여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식량과 곡물 자급률이 그리 높지 않은 우리가 타산지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거대 여당과 야당에서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비례의 후보를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호남의 농촌 지역 구 출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 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 농어업인 공익 수단 지원법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 예산 중 농업 부문 예산은 겨우 3.1%를 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잇단 추경에서도 농업 부문 예산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농업은 단순한 비교 우위론의 대상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

올 연말이면 비과세 예탁금을 포함해 20여 개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일몰 기한

이 도래되어 감면 세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한의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 45조 원 중 상당액이 제1금융권 등 외국계 은행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 경제 상황에서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금의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 지역 농협 당 평균 3억 원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문제인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여촌 만들기’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망 확충’ 등을 농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과세 예탁금 등 농업 부문 일몰 기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과 대등해질 때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해 본다.

無等鼓

정부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부터 시작하는 사흘 동안 황금연휴가 된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임시공휴일 검토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는 사실도 부연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5년에도 광복절 70주년 기념과 함께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총 60차례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 공휴일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이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군사 정권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듬해에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특히 군사정권에서는 제멋대로 대통령 취임일 등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1969년 7월 21일)을 기념한 특이한 임시공휴일도 있었다. 또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됐던 1987년 10월 27일과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9월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

이에 긴 2017년 10월 2일(60번째)이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생긴

적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을 넘어서면서 정부도 국민도 많이 지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숨 쉬어갈 수 있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적절한 선택이 될 듯하다. 물론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3일의 황금연휴가 국민의 피로감을 덜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